

# 비극적 역사 다룬 실화... 첫 1000만 영화 위업

북파 부대 '실미도 684부대' 극화 3년간 감시·학대 리얼하게 담아내 강감독 "목격자 심정으로 만들어"



실미도

실화 바탕의 영화에 대한 관객의 지지는 때로 폭발적이다. 잊혀진 역사의 순간을 되새기게 하고,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인물을 다시 주목받게 만드는 극적인 효과로 해당 영화들은 대체로 흥행해왔다.

실화의 힘으로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고 시대적 공감까지 확보하면서 영화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 작품이 본격 탄생하기 시작한 건 강우석 감독의 2003년 작품 '실미도'부터다. 1960~70년대 북

파특수부대인 '실미도 684부대' 이야기를 극화한 영화의 누적 관객은 1108만 명(배급사 집계). 그야말로 '국민적' 지지 속에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상징적 이면서도 결정적인 작품이다.

영화는 월북한 아버지로 인한 연좌제에 얽혀 수감된 주인공 강인찬(설경구)

에게 한 군인이 찾아와 '나라를 위해 칼을 잡겠느냐'고 제안하면서 시작한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의 부둣가에는 인천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영문도 모른 채 외딴섬 실미도로 끌려간 이들은 어느 새 훈련병이 돼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 목을 따 오는" 임무를 받고, 악랄한 감시와 학대 속에 지옥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북파특수부대원 31명이 3년간 겪은 참상을 통해 역사의 희생자이자 목격자로서 이들의 삶을 스크린에서 되살린 '실미도'는 대담한 메시지는 물론이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 규모와 방식의 변화까지 이끈 작품으로 기록된다. 주인공 설정구를 비롯해 안성기, 정재영, 허준호, 임원희, 강신일 등 주연급 배우들을

대거 기용한, 이른바 '멀티캐스팅'의 시초이기도 하다. 지중해 몰타에서 찍은 수중 침투 및 뉴질랜드에서 촬영한 겨울 훈련 장면 등을 통해 리얼리티를 확보해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기도 했다.

개봉 첫 주에만 159만 명을 모은 '실미도'는 이듬해 2월 1000만 관객 돌파에 성공, '불세출의 기록'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강우석 감독은 "관객이 영화가 아니라 진짜 실미도 사건현장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어 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동아일보·2004년 1월6일자)고 밝혔다. 뒤를 이어 2004년 2월 개봉한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까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영화 성장에 결정적인 기록제가 됐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연예

15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 연예뉴스

오달수 복귀 "초심으로 돌아갈 것"



오달수

지난해 초 '미투'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오달수가 1년6개월 만에 복귀한다. 오달수는 13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독립영화 '요시찰'에 출연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초 고향으로 내려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지냈다"면서 "그러는 동안 경찰의 내사는 종료됐다. 지난 일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질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갯세븐 잭슨 밀랍인형 홍콩서 선보

남성그룹 갯세븐의 홍콩 출신 멤버 잭슨의 모습을 담은 밀랍인형이 그의 고향에서 선보인다. 1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잭슨의 밀랍인형은 홍콩 글래머 전 시관에 놓여졌다. 현재 재건축 중인 뮤지엄 아인 전시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옮겨질 예정이다. 앞서 영국 전문가들이 홍콩을 방문해 9시간에 걸쳐 신체 사이즈를 측정된 뒤 제작됐다.

## 가수 재개 김현중 "팬들과의 만남부터"

일본·홍콩·태국·방콕등서 공연 픽업서비스·리허설 관람 등 계획



김현중

2년 전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가수 김현중이 팬들과 친밀함을 쌓는 행보를 내딛는다.

김현중은 이달 21일부터 일본에서 월드 투어 '바이오리듬' 무대를 펼친다. 이를 앞두고 9월7일 홍콩과 10월6일 태국 방콕 공연을 추가했다. 김현중은 이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할 기세다.

우선 홍콩과 방콕 공연은 여행을 접목해 관광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했다. 각 도시의 관광지를 포함해 공연장에서 숙소, 숙소에서 공연장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연 리허설 장면도 팬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공연 후에는 팬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는 '하이터치 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김현중은 자신의 변화한 음악 스타일을 소개하며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미지 변신과 가수로서 영역 확대를 목표로 올해 초부터 밴드 형태의 음악에 도전하고 있는 그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활동의 결과물로 9월11일 록 장르의 신곡 '디스 이즈 러브'를 내놓는다. 뒤이어 12일과 13일 일본 도쿄 신키바의 스튜디오코스트에서 R&B밴드 유명한 지기(ZIGGY)의 보컬리스트 모리시게 주이치와 록밴드 준 스카이 워커스(JUN SKY WALKER(S))의 베이시스트 테라오가 요히토를 초대해 콜라보레이션 라이브로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로카르노영화제 '엑셀런스' 송강호, 靑 배우로 첫 수상



"탁월한 배우". 송강호가 13일(한국시간) 제7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엑셀런스 어워드'(Excellence Award)를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스위스 로카르노 필렉스프를에서 열린 영화제 시상식에서 송강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때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예술가들에게 따듯한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4년 신설된 '엑셀런스 어워드'는 독창적인 재능으로 영화에 기여한 배우에 헌정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그의 주연작 '기생충'을 함께 한 봉준호 감독도 참석했다.

로카르노(스위스) |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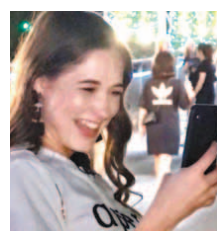
## 외국인 예능 통했다... '어서와', 100회 어서와!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15일 100회를 맞는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을 담아냈다는 호평에 힘입어 2년간 꾸준한 인기를 모아 눈길을 끈다.

2017년 2월 시작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모국의 친구와 가족 등을 초대할 뒤 이들

이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담는다. 단순한 토크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시청자 사이에서는 "'외국인 예능'의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얻었다.

신선한 기획력으로 MBC에브리원 프로그램 최초로 작년 2월 5%(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돌파하는 힘을 발휘했다. 최근에도 3%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한국



'어서와'

PD대상 등 각종 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100회 방송을 앞둔 13일 조범 MBC에브리원 제작센터장은 "외국인이란 출연자보다는 여행이라는 소재에 초점을 맞춘 기획의도가 적중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단순한 '외국인 출연 예능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여행 예능프로그램이 주는 힐링의 정

서를 추구한 것이 통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드러내는 각기 다른 반응이 재미를 안김과 동시에 해외여행을 경험한 시청자들의 공감도 자아냈다는 설명이다.

제작진은 앞으로도 그 본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새로이 다지고 있다. 조 센터장은 "더욱 다양한 나라의 출연자를 섭외하고 그만큼 또 다채로운 국내 여행지를 선정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교육·퍼즐

에듀윌

전문가·합격자가 답해주는 Q&A 서비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 "공인중개사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물어보세요"

지난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면서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실제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 적용 기준에 귀추가 주목됐다.

그러나 실제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한정했다. 재건축·재개발 단계에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국내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가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공인중개사 실무자라 하더라도 매년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과정



관련 궁금증을 포함한 시험 정보, 개업 노하우, 중개 업무 및 최근 이슈 등을 모두 질문

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에듀윌 지식인' 서비스를 오픈하고 사용자 모집한다고 전했다.

본 서비스는 관련 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전문가를 포함해 합격자가 답해주는 Q&A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실무 전문가들의 숨겨진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에듀윌 지식인' 서비스에서는 100% 당첨되는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질문 및 답변 활동에 참여하면 매일 3번의 추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 스도쿠문제

			4	5		8		
8		5	7	2				
	4		8			3	5	
3			2					
	7	4	6		1	9	5	
6			9				7	
	1		5			9		
		8	4		5		1	
3		9	8					

		4	5			7		9
8				1		4		3
	7		6		8			2
3		1				9		
	6						2	
		2					3	5
2			8		5		3	
5		7		9				6
	1	7				5	4	

### 스도쿠정답

2	9	4	8	1	6	7	3	5
1	5	7	4	2	3	8	9	6
3	6	8	9	5	7	2	1	4
7	2	3	4	6	8	1	5	9
5	8	1	3	9	4	7	2	6
4	1	9	5	6	2	8	3	7
9	5	6	1	8	3	4	7	2
6	8	2	7	3	5	1	4	9
8	9	7	5	1	2	4	6	3